



3면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음 12월 7일) 제2700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연구원 '올해 10대 아젠다' 선정

코로나19 극복 · 전북형 뉴딜 구현

생태문명 · 탄소중립
사회안전망 · 새만금
탄소-수소산업 융합
지역고용 안전망 등

22개 추진 전략도 제안
도민 의견 수렴 지속 추진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이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전북의 대도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2021년 전북 10대 아젠다'를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매년 한 해 동안 주요 이슈가 될 '10대 아젠다'를 선정해 발표해왔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일상으로 복귀와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전북형 뉴딜 구현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연구원은 2021년 10대 아젠다로 ▲전환사회 전북도 생태문명으로 대도약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과 문화의 재편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넷제로)전략 수립 ▲전북 대도약의 엔진, 초광역 협력으로 성장관 ▲돌봄의 일상화와 과학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새만금 시대의 개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고용 안전망 확충 ▲전북성장은 탄소-수소산업 융합이 열쇠 ▲지역주도형 글로벌 농식품산업 혁신체계 구축 ▲팬데믹의 성인지적 대응을 통한 워라밸 구현을 선정했다.



거리두기 지키며 카페 이용하는 시민들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 18일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22개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2021년 이 코로나시대(with covid19)의 뉴노멀 사회, 생태문명사,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혁신과 사회체계 전환을 통한 생태문명으로 대도약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블루를 이기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함과 동시에, 코로나 시대 환경변화에 대한 경제·사회적 대응력을 제고해야 하며, 기후·환경 위기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인프라

라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2021년도를 전북 대도약시대를 가속화하는 한해로 보았다.

새만금 내부용지 조성과 투자유치 명사화,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1년도를 전북 대도약시대를 가속화하는 한해로 보았다.

이런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혁신과 사회체계 전환을 통한 생태문명으로 대도약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년의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예방적 일상 방역체계 지속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 디지털 돌봄 확대 등을 포함한 돌봄의 일상화와 과학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 취약계층 보호와 상생협력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생활 균형(워라벨) 구현 등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포용적 정책도 2021년도의 주요 정책 아젠다로 판단했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전북 10대 아젠다의 구체화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포럼 세미나를 통한 이슈 확산 및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중기에 최대 3억 용자

전주시, 21~29일 육성자금 용자지원 접수
소상공인에겐 최대 2000만원까지 용자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용자지원에 나선다.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6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 용자를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 상반기에 107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기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용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용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운전·창업자금)이다. 소상공인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용자(이자보전) 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이며, 협약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 반기업에는 3%까지, 여성·장애인 기업과 벤처기업, 바이전주 업체, 우수항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는 3.5%까지 이자가 보전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 홈페이지

(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본관 3층에 있는 기업지원 사무소(063-281-2945, 2068)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용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용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9개 금융기관(전북, KB국민, 신한, IBK기업, KEB하나, KDB산업, 우리, NH농협, 수협)에서 2개월 이내에 용자를 신청하면 된다. 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로 신청 이전에 대출 신청은행과 자금대출 상담이 필요하다.

강병구 전주시 중소기업과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올 상반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시기인 만큼 통상 9월에 진행하던 하반기 용자지원 신청도 시기를 앞당겨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대설기간 시설대책 추진 만전

18일 오전 8시 기준 도내 1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것과 관련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해 교통혼잡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이 진안, 장수 -14℃, 대부분지역이 -9~-14℃로 머물

것으로 예상돼 내린 눈이 빙판길이 예상됨에 따라, 도는 이번 대설기간 동안 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출근길 및 등굣길 안전을 위해 도로 결빙 예상구간에서 전 시·군이 시설작업 실시했고, 공공기관 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17일 밤부터 18일 새벽사이 제설장비 290대, 인력 437명, 제설제 1,442톤을 투입하여 455개 노선의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제설장비도 동원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원격으로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33곳의 자동제설장치를 운용 중이다.

또한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대비해

한국전력공사, 수원원공사, 가스공사 등에서 출근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추어 운영했다.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겨울 잦은 적설과 한파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면도로 등 결빙구간 제설·제빙을 신속히 실시하고 취약계층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사회적경제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노력

전북대 LINC+사업단-농진청-사회적경제대학협, 협약 체결

전북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이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사회적경제대학협의회(추진위원장 유남희) 등과 3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5면)

세 기관은 18일 고영호 단장을 비롯해 유남희 추진위원장과 허태웅 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사회적경제분야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분야 산학연관 협력사업 추진, 기관 사업과 사회적경제분야에 필요한 상호 교류와 협력 등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